

콜럼버스 교구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ck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 평일미사 : 매주 금요일 오후 5시30분
- * 성시간 : 매월 첫째 금요일 미사 후
-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본당 소식

- ◆ 오늘 미사 중 **첫영성체** 예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첫영성체를 위하여 준비해 온 이들이 성체를 받아모시기에 합당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 ◆ 오늘 미사 후 **병자봉성체**가 있습니다.
- ◆ 다음 주일(8월 30일)에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 ◆ 매월 둘째 수요일, 본당 **빈첸시오회**에서 **홀리스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매월 둘째 수요일 12-1시
 - 장소: Faith Mission Shelter
599 E 8th Ave. Columbus, Ohio
- ◆ **정하상 구역모임**
 - 일시: 8월 29일 (토) 저녁 7시
 - 장소: 김도균 프란치스코 형제님 댁
7419 Wyndle Ct
Dublin, OH 43016
(614) 316-9392

- ◆ **친교 준비 봉사자**
 - 8월 23일: 성모회 8월 30일: 운동열
- ◆ 8월 친교 후 정리 봉사: 이호영 구역
- ◆ 2009년 BAA (Bishop's Annual Appeal) 모금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5,700이며, 지난주까지 모금액은 \$3,380입니다.
 - 참여하실 분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성모회에서 롯데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판매금액의 10%가 성모회 기금으로 모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 |
|---------|----------|
| 주 일 헌 금 | \$509.00 |
| 교 무 금 | \$450.00 |
| BAA | \$40.00 |

- 교무금: 최일성 김정일 이현정 김성하 김성애
- BAA: 이현정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Korean Catholic Community

연중 제21주일 August 23, 2009



< 제자들을 가르치는 예수님 >

두초 (1260-1319년경), 템페라, 시에나 대성당 박물관, 시에나, 이탈리아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여호수아기 24,1-2, 15-17, 18, 24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화답송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제 2 독서 에페소서 5,21-32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큰 신비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알렐루야

복음 요한 6,60-69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 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 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 구역 | 지난 주일 | 합계 |
|-----|---------|--------------------------|
| 김제준 | 단 명 | 5,923단 34명 |
| 이호영 | 210단 2명 | 23,494단 161명 |
| 정하상 | 단 명 | 3,485단 77명 |
| 황석두 | 단 명 | 7,460단 78명 |
| 김효임 | 단 명 | 1,171단 29명 |
| 기타 | 단 명 | 130단 3명 |
| 미사중 | 단 명 | 12,109단 10,315명 |
| | 210단 2명 | 2/22/04 - 8/16/09 (286주) |

총누계: 218,482단 12,796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 | 8월23일 | 8월30일 |
|---------|---------|--------|
| 해설자 | 박귀영 | 김오경 |
| 독서/봉헌 | 김제준 구역 | 김효임 구역 |
| 보편지향 기도 | 십자가의 모후 | 평화의 모후 |

오늘의 성가

♪ 입당: 10 ♪ 봉헌: 217
 ♪ 성체: 164 165 ♪ 파견: 19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장광재 요아킴 신부 | 상설고해 사목부

“후회하고 계시죠? / 네. / 그런데 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 네?”

여름휴가를 앞두고 작은 실수로 명동 성당 근처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문구용 칼을 잘못 사용하여 손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사무실에는 치료 도구가 없어 만약을 위해 응급실에 갔습니다. 바빠 움직이는 직원들과 119구조대, 경찰 등이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을 데리고 오고 가고 하였습니다. 간호사의 간단한 소독 후에 전문의가 와서 상처를 보고 꿰매면서 저에게 한 말이 “후회하고 계시죠?”였습니다. 물론 병원에 오면서 ‘좀 더 조심할걸, 오늘 말고 다음에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하는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친 손가락에 붕대를 감으면서 던지자 않게 조심하라는 의미로 “또 후회하지 않도록 하세요”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성당으로 오면서 지금 후회하는데 또 후회하는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 다 나를 때까지는 모든 것에 조심하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알아듣기 힘들다고 떠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곁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이에 베드로는 모범 답안을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 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질문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자유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던지시는 말씀이기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께 대답을 해 드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아니 나는 어떤 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뺀다고 나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하신 하느님이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 나약한 나를 먼저 알고 그런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어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신 분, 나의 부족함이 당신을 드러내는 통로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런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계시는 때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의 질문에 옳은 답을 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옳은 답을 통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맛보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화답송 후렴). 그러나 올바른 선택도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이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깊고 넓게 뿌리내리게 도와주는 누룩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신앙여정을 본받아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어려워도,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해 주시는 주님을 온 마음으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에서 나옵니다.